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29> 따로 성인의 깨달음이란 없다

건강한 몸이나 약이 필요 없는데도 아프다고 자꾸 약을 고집하면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라.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중생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깨달음이란 약을 들고 나왔는데, 중생이 깨달아서 이미 부처가 되었다면 따로 깨달음이나 열반 해탈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성인의 깨달음은 중생의 알음알이 병을 고쳐주는 방편으로 필요한 약이었지만, 중생의 병이 다 나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쓸 일이 없다. <선가귀감> 29장에서는 중생의 알음알이를 떠난 그 자리가 바로 성인의 깨달음이지, 그 자리를 떠나 따로 성인의 깨달음이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修行之要 但盡凡情 別無聖解  
수행의 요체는 다만 범부의 알음알이를 다 없애 뿐이니, 따로 성인의 깨달음이란 없다.

각에 빠지고 성인이라 하면 성인이란 생각에 빠지는 나쁜 버릇에 길들여져 있어 있어도 병이고 서 있어도 병이다. 중생의 이런 병을 고쳐 주려고 부처님께서는 몸소 유(有)와 무(無), 공(空)과 가(假)라는 알기 쉬운 방편을 활용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런 방편조차 공성(空性)임을 알게하는 중도 법문을 설했다. 범부의 알음알이를 없애주려는 방편으로 성인의 깨달음을 내세우지만, 알음알이가 사라지면 알음알이의 상대적 개념인 성인의 깨달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성인의 깨달음이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한다면 이 또한 변견으로서 중도를 바로 보는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선가귀감> 언문주해에서는 “범부의 알음알이와 성인의 깨달음이란 모두 헛된 견해에서 생겨났으니, 이 두 가지 견해를 다 버려야 비로소 ‘하나 된 온전한 부처님의 성품’에 들어간다고 풀이했고, <오동회원(五童會元)>에서는 “오직 한가로운 삶 속에서 인연따라 살아가며 범부의 알음알이만 없애 뿐이니 따로 성인의 깨달음이란 없다”고 말하였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 성인의 깨달음도 집착하면 변견 공성(空性) 보고 중도의 삶 살아가야

“병이 나아 약 쓸 일이 없다면 [病盡藥除]에서 병이란 중생의 알음알이나 번뇌를 말한다. 이 병에 내려진 약의 처방이 교

가(敎)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고 간화선에서는 화두가 된다. 중생에게 병이 있을 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화두를 공부해야 되지만, 중생의 병이 다 나아 부처가 되었다면, 부처가 되기 위한 가르침이나 화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알기 전의 그 사람[本人]은 병이 나아 약 처방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사람이니, 그는 곧 부처임을 비유해 말한 것이다.

“병이 나아 약 쓸 일이 없다면”이란 이 구절은 원래 영명연수(904-975) 스님의 저서 <종경록(宗鏡錄)>에 있는 글인데, 대혜종교(1089-1163) 스님이 이 글을 보고 다시 <대혜보각산서어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 잘못을 알았다면 환약(幻藥)으로 환병(幻病)을 치료한 것입니다. 병이 나아 약 쓸 일이 없다면 예전처럼 옛 사람 그대로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 있는데도 달리 깨달음 사람이 있고 깨달음 병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마구나 외도들의 견해입니다.”

“환약”은 부처님 가르침이나 성인의 깨달음을 말하고, ‘환병’은 중생의 알음알이 병을 말하며, “예전처럼 옛 사람 그대로”란 “알기 전의 그 사람[本人]”이니 이는 곧 부처를 말한다.

우리 범부는 보통 무명이 깃든 중생의 마음을 쓰고 살기에, 그 ‘잘못된 알음알이’ 속에서는 이 세상 온갖 삶 자체가 다 고통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범부의 알음알이’를 버리고 ‘성인의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마음을 쓰고 살아야한다. 중생의 차지에서 저 높은 성인의 깨달음에 들어가려면 ‘깨달음’을 목표로 삼아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성취되면 공부하는 사람이 ‘깨달음 그 자체’와 하나가 되어 깨달아야 할 대상도 같이 사라진다. 범부의 알음알이가 다 사라질 때 그 자리에 바로 성인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 범부의 알음알이를 떠나 따로 성인의 깨달음이란 없다. 이것이 병이 나아 약 쓸 일이 없는 예전 사람처럼 ‘옛 사람 그대로 곧 부처’인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nia.com/community/wonsun

### 행복동 사람들

탐욕의 끝  
배종훈 (bjh4372@hanmail.net)

## 한입에 소옥~ 불교상식

### 고따마 싯다르타

“고따마 싯다르타”의 뜻은 무엇인가? 답하라!  
13년 전인가? 군중사병 선발 필기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군인대를 읽은 저는 한 부대 교화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이 질문과 마주 했었죠. 너무도 긴장을 했을까

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고따마 싯다르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속가 이름입니다. 고따마(Gotama)는 ‘매우 좋은 소’, 싯다르타(Siddhatha)는 ‘만사가 이뤄진다. 소원성취’의 뜻을 담고 있고.  
그럼 석가모니는 무슨 뜻일까요? 출신성분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석가는 ‘사끼족(Sakya)’을 한자 발음한 것이고, 모니도 ‘성자(聖子)를 의미하는 ‘Muni’를 한역한 것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ia.com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4)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2부 50장 스티브 잡스의 인생강의

스티브 잡스가 작년 스탠포드대학에서 연 설을 했다. 잡스가 누구냐고 할지 모르겠다. 매킨토시로 유명한 애플 컴퓨터의 창립자라면 이해가 빠르겠다. 그는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애플의 침몰과 더불어 다시 애플, 애플의 재진성을 도모하고 있는 CEO이다. 그가 졸업식장에서 젊은이들을 위해 짧은,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별 것 아닌(no big deal)’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나는 ‘점 잇기(connecting dots)’에 관한 자신의 통찰이다. 아니 이 말은 ‘이어지는 점들’이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는 대학원생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생모는 교육받은 집안에서 자라기를 원했지만 뜻하지 않게, 고통과 교도 못 마친 노동자 집안에 입양된다. 양부모는 생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를 대학에 보내지만, 리드 칼리지는 사립인데 등록금이 시체팔로 장난이 아니다. 첫학기 등록금으로 부모가 평생 저축해온 돈을 들여야했다니, 짐작할 만하다. 잡스는 고민하다가 “학교가 그만한 거지 않다”며 정식 등록을 포기한다. 그러면서도 대학에 남아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청강하면서 1년 반을 보낸다.  
생활은 로맨틱하지 않았다. 친구 하숙집

마뚤바다에서 자기도 하고, 5센트짜리 빈병을 주워 모아 빵을 사먹기도 했다. 제대로 된 식사한끼를 해결하기 위해 10킬로나 떨어진 히레 크리슈나 사원까지 걸어가기도 했는데, 그는 그 꼴맛을 잊지 못하고 했다.  
정식 등록을 포기한 그는 좋아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들었다. 특히 서체에 폭 빠졌는데, 손으로 쓴 글씨의 미려함과, 글자 형태에 따라 자간 차이와 폭을 재조정하는 그 비규칙적 규칙에 매료되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었다. 그저 좋아서 들었을 뿐이다.  
이 서체 강좌는 10년 뒤 애플 컴퓨터를 기획하고 디자인할 때 결정적 의미를 띠고 떠오른다. 애플은 한국에서는 예외적 매니아들만 쓴다. 다들 빌 게이츠가 만든 윈도우를 운영체제로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자인 특히 북디자인과 레이아웃에는 애플을 우를 운영체제로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자인 특히 북디자인과 레이아웃에는 애플을 우를 운영체제로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자인 특히 북디자인과 레이아웃에는 애플을 우를 운영체제로 쓰기 때문이다.  
잡스는 말한다. 자신이 대학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기를 결정했을 때, 그것이 나중 어떤 의미를 띠게 될지 몰랐다. “지금과는 그 점이 과거로 이어진 것이 보인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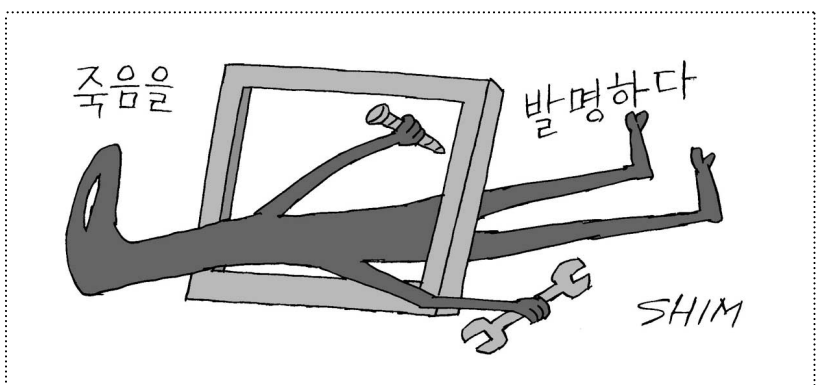
무도 미래로 이어진 점들은 볼 수 없다. 어딘가로 연결될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배짱이든, 운명이든, 삶, 그리고 카르마 그 무엇이든 여기 믿음을 갖고 자신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잡스는 그 믿음이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그 믿음이 남과 다른 자신만의 ‘차이’를 만들어주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일찍 발견한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나이 스물

하고 일을 찾아 나서세요! 연인을 찾아 나서야 하듯, 일도 그와 같은 것이라합니다. 기다리고 있지 마세요. 일은 삶의 아주 큰 부분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을 때에만 인간은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세요. 어쨌든 타협하지 마세요. 모든 마음의 일이 그렇듯이, 당신이 발견한 순간, 당신은 그것을 알 수 있을

었다고 한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라면, 그래도 지금 하려는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인가?” 아니요 라는 대답이 자주 나온다면 그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삶에 고비마다 중대한 선택을 해야할 때, 그는 자신이 이득과 죽을 것이라는 것을 떠올렸다고 한다. 사람들의 기대, 자만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 등, 이런 것들은 죽을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거기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 남는다. 그것은

적절하게도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특이한 종양이라한다. 그는 수술을 받았고, 회생했다. 그는 그동안 머리론만 알고 있던 죽음을 더 분명히 실감으로 알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거기 일찍 가겠다면서 죽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숙명이고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손입니다. 그것은 낡은 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위해 길을 만듭니다. 지금은 당신들이 새로운 것에 속하지만, 얼마까지 않아 점점 낡아다가 결국 치워질 것입니다.”  
“제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말했나요. 그러나 그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삶은 시한부입니다. 그러나 남의 인생을 사느라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도그마에 불합치하지 마십시오. 도그마란 다른 사람이 생각해 놓은 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는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묻혀버리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당신의 마음과 직관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도록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가슴은 당신이 진정 무엇이 되고 싶어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잡스는 어렸을 때 읽었던 백과사전 이야기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 타자기와 가위, 그리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만든 이 열정의 작품 뒷면에, 시골 고갯길 사진이 있었고, 거기 경구 하나가 씌어져 있었다 한다. “주린 창자로, 그리고 미련하게... (stay hungry, stay foolish)”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nia.com/community/plan\_14

## “주린 창자로, 그리고 미련하게”



니다. 일과 당신의 관계는 시간과 더불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찾으세요.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세 번째 그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들려준다. 그의 마음에는 17세에 들었던 어느 현자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매일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그는 어느새 바른 길에 들어서 있을 것이다.” 그는 나이 50이 되도록 매일 매일을 거울 앞에서 물

상실에 대한 염려라든, ‘생각의 함정’을 벗어나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는 1년 전에 회장님 판정을 받았다. 청천벽력이었다. 길이가 3개월에서 6개월, 의사가 정리를 하라는 통보를 했다. 아이들에게 10년동안 해야할 일을 단 몇 개월에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절망 속에서 보냈다. 그날 저녁 조지 김사를 다시 했고, 의사가 울면서 달려왔다. 기